

**배울 말 씀** 욥기 1:1-42:17  
**읽을 말 씀** 욥기 42:1-6  
**외울 말 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강건한 사람이 된다.

**포인트**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목표** ①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 믿음이 성장하였음을 안다.  
 ②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다.  
**준비물** 성경, 말씀마당 그림책(별지 21과 ‘양을 빼앗는 사람들’, ‘무너진 집’), 어린이용 교재, 필기도구, 재접착 풀, 풀, 바구니(혹은 상자), 21과 질문 카드, 가위

## 설 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성경 시대의 의인이었던 욥은 하루아침에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어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셨다. “너는 내가 땅을 만들 때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호수와 바다의 물을 마치 문을 닫는 것처럼 막아서 해변에 넘치지 않게 하였느냐? 누가 번개와 천둥의 길을 만들었느냐?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셨다. 욥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이 겪은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주권자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은 정금과 같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정금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다.

21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자.

## 핵심 단어

**욥의 시기** | 욥이 어느 시대의 인물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족장 시대(아브라함-요셉의 시기) 정도로 본다. 왜냐하면 욥은 한 대가족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많은 종들의 생활까지 책임을 지고 있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는 아브라함 등과 같은 대가족 족장의 문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욥이 살던 우스 땅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 면에서 볼 때, 욥은 이스라엘의 형성 이전에 살았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추론이다.



GO!

‘나의 잘못 없이 생긴 고난 적기’ 활동을 하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 생각해본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힘들거나 속상한 일들 말이에요. 그중에는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의 잘못 없이, 어려운 일이 생겨 힘들었던 경험 있나요? 있다면 어린이용 교재에 적어보세요. (어린이들이 어려워할 경우, 교사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예 이유 없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저를 왜 따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다 적었나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을 ‘고난’이라고 해요.

이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하지만 이런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유익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READY!

① 말쑼마당 그림책 21과를 준비한다.

② 말쑼마당 그림책 별지(21과 ‘양을 빼앗는 사람들’, ‘무너진 집’)에 재접착 풀을 칠해 준비한다.

GO!



(21-1의 왼쪽 그림을 가리키며)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정직하고 진실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21-1의 오른쪽 그림을 가리키며)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별지 21과의 ‘양을 빼앗는 사람들’을 붙이며) 갑자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 욥의 소와 양 떼들을 모두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인 거예요.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뿐 아니에요.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별지 21과의 ‘무너진 집’을 붙이며) 그런데 큰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한꺼번에 모든 자녀를 잃은 욥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욥의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에게 피부병이 생겨 온몸에 종기가 난 것이에요. 온몸이 너무나 가려워 견디기 힘들었지요.

욕은 이 모든 고난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순식간에 모든 재산, 자녀,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21-2를 보여주며)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은 왜 욥에게 고난이 생겼는지에 대해 말했어요.

“네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벌을 받는 거야!” (욥 4:7)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욥 11:13-14)

친구들은 욥이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욥을 다그쳤지요. 욥은 친구들로 인해 더욱 괴로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네.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네.” (욥 23:10)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21-3을 보여주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근엄한 목소리로)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온 우주와 지구를 다스리느냐? 누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스리느냐? 바로 나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욥 38:1-40:2, 40:6-41:34)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욥 42:1-2).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일어난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욥에게, 자신이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는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욥은 그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욥은 겸손히 엎드려 회개했어요(욥 42:2-6).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향한 더욱 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뻐하셔서 건강을 회복시켜주셨고, 자녀를 주셨으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GO!

오늘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 욥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욥은 정직하고 진실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나요?

(소와 양 떼들을 빼앗겼고 종들이 죽었어요/자녀들이 모두 죽었어요/피부병이 생겨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1. 욥의 친구들은 왜 욥에게 고난이 생겼다고 생각했나요?

(욥이 큰 죄를 지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2. 욥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온 세상의 주인 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욥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3. 기쁜 일이 생길 때나 괴로운 일이 생길 때나 모든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4. 욥은 고난을 통해 어떻게 변했나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었어요/믿음이 더욱 자랐어요/하나님을 향한 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웠어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

READY!

① 예수빌리지 홈페이지의 '질문 카드 21과'를 다운로드하여 양면으로 인쇄한다.

② 질문 카드를 미리 잘라두어 준비한다.

GO!

① 형제자매의 수가 많은 어린이부터 두세 명씩조를 만든다.

② 잘라둔 질문 카드를 뒤집어 부채 모양으로 펼쳐 보여준다.

③ 각 조의 대표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씩 질문 카드를 가져간다.

④ 카드의 질문을 보고 조별로 의논하여 답을 찾은 후, 질문과 함께 답을 발표한다.



READY!

- ① 필기도구와 풀을 준비한다.
- ② 바구니(또는 상자)를 준비한다.

GO!



어린이용 교재의 생각마당 '나의 잘못 없이 생긴 고난 적기' 활동을 진행한다.

(활동을 한 후) 들은 말씀을 기억해보세요. 읊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나요?  
(대답을 듣는다.)

읍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었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에는 유익이 있어요.

1.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한다.



조금 전 생각마당에서 여러분이 적은 메모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적은 메모지를 떼어서 가로세로로 한 번씩 접고,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바구니에 넣은 후) 이제 제가 메모지를 하나씩 꺼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읽어줄게요. 그러면 메모를 작성한 어린이는 손을 들고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는지(혹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주세요.

그런 다음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그 친구를 향해 두 손을 펼치고 “힘들었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랄 거야!”라고 외쳐주세요. (모든 메모지를 읽고 메모지 주인에게 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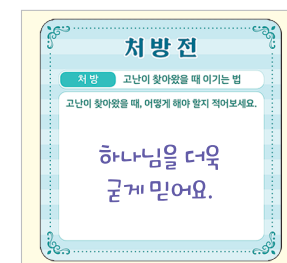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유 없이 생긴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는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고난들도 있지요.

나의 잘못으로 고난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이 생겼을 때에는 먼저 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후, 그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오해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해를 풀어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어린이용 교재의 ‘처방전’에 적어보세요.

- ☞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해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어요 등

다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적은 내용을 한 명씩 발표해보세요. (한 명씩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메모지를 점선에 따라 마름모 모양으로 접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처방전을 붙여보세요. (시간을 준다.)

이 처방전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믿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잘 알게 되고, 단단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 기도

하나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잘 믿어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